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사기 · 고린도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사기 · 고린도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추수(秋收)



올 가을 추수 마당엔
저친 빗줄기에 상했으나
농부의 안타까운 손길 타고
소생한 곡식들이 기쁨으로 쌓여있겠지요.

그런 곡식들을 생각하니
마지막 추수 때 우리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 가는 심지도 쪼지 아니하시니(마 12:2)
주님의 인자한 손길 덕택에
알곡 되어있을 우리 모습을...

고난과 역경의 세파에 허물어지고
죄의 유혹에 찢겨진 우리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은
추수 날의 기쁨을 아시는 까닭에(사 53:11)
우리 위한 모든 수고 즐거이 행하시니(히 12:2).

주님의 그런 수고 나 아는 까닭에
기쁨의 알곡 되려 주님 손길에 내 모든 겻 맡깁니다.

2003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사사기 서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책이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신앙의 배교(背敎)를 경고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촉구한 바 있다(민 24장). 그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코 배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수 24:16-18). 그러나 사사기가 보여주는 역사는 참으로 비참하고 처절한 실패의 역사이다. 사사기에는 “범죄-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강대국들의 압제-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하나님의 구원-재범죄”의 악순환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된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다. 이러한 내용의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깊이 숙고해야 할까?

첫째로, 왜 이스라엘이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다면 여호와를 잘 섬겼던 그들이 왜 타락하고 범죄하기 시작했던 것일까? 그 원인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물론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 근본적인 원인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았던가! 그들 스스로 다짐하기도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수 24:21)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그들이 어디에서 처음 떨어진 것일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원인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강대국들의 압제-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하나님의 구원-재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죄악의 쇄사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몇 십 년간 미국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확고한 각오와 결의가 있지 않았던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런 다짐과 결의로도 그들은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자.

셋째로, 종교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나 깊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자. 사사 시대의 타락과 부패는 신앙과 종교를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타락과 부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의 외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비참하고 처절한 타락과 부패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점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자. 종교의 외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소름끼칠 정도로 느껴보자. 종교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넷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며 사사기를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시대(時代)의 전반적인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사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을 가지고 규명해 보도록 하자.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도록 하자.

내용분해

I 사사 시대의 배경 1:1-3:6

1. 가나안 정복의 실패 1:1-36
2. 하나님의 심판 2:1-3:6

II 사사 시대의 역사 3:7-16:31

1. 웃니엘, 에훗, 삼갈 3:7-31
2. 드보라와 바락 4:1-5:31
3.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아일 6:1-10:5
4. 입다 10:6-12:7
5. 입산, 엘론 압돈 12:8-15
6. 삼손 13:1-16:31

III 이스라엘의 타락 17:1-21:25

1. 신상 숭배 17:1-18:31
2. 불륜 행위 19:1-30
3. 동족 상잔 20:1-21:25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지 못하므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 시험은 곧 그들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웃니엘과 에훗을 사용하여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본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어,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과 삼갈을 세워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을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범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하솔왕 야빈을 들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20년간의 긴 고통은 인간을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다신 한번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를 토설하는 자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결코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똑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17절부터 42절에는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비참한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스라는 드보라의 예언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고 맙니다. 이로써 모든 전쟁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동일한 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드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야빈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된 사실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곤경을 당하나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것 같으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때때로 시험과 환난에 빠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 가운데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시 태평해지면 그 모든 것을 잊고 또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장에도 보면, 드보라 이후 40년을 평안하게 지낸 뒤 이스라엘은 또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확하게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은 대부분 징계를 당할 때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11-24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미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로, 또는 직분자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미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 중 수많은 무리의 군사를 되돌려 보내시고 오직 300명의 용사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3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향아리와 나팔과 횃불만으로 전멸시켰습니다. 만일 많은 수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물리치심으로써, 오직 여호와와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장점, 지혜나 탁월한 판단력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승리의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은 실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매우 교활하여 자신을 빛의 천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도저히 사탄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쳐부수는 무기로 오직 나팔과 횃불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복음의 나팔과 진리의 횃불만으로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그것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제목 / ① 오직 복음과 진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고 사사가 되어 미디안 군대를 소집할 때에,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불렀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불려서 전쟁에 참가시킵니다. 이에 에브라임 지파는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가 아님을 아는 기드온은 겸손히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 뉘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빌 2:6-8).

특별히 4절부터 21절에서는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적인 상황만을 보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기드온에 의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회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큰 힘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소망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두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기드온은 사사로서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큰 재앙의 불씨가 됩니다.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을 진멸하십니다. 이러한 비극의 불씨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기드온의 축첩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높아져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교만과 욕심이 앞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겜 족속도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우를 범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출세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거짓된 동기와 욕심을 보시고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경외하여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기드온의 사후에 자행되었던 이스라엘의 범죄(8:33-35)에 대한 보응은 아비멜렉을 통한 징계(삿 9:1-6, 22-49)와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삿 9:50-57).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도래하였습니다. 본 장은 아비멜렉의 사후에 돌라(1,2절)와 야일(3-5절)이 연속하여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써 45년 동안을 태평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의 범죄⇒하나님의 징벌⇒백성들의 회개'라는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돌라와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각종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 꼬리를 감춘 듯했으나 영적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인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인 침체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징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대적들의 손에 빠진 이스라엘은 다시금 평화를 갈구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망하시며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패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된 자들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전반부(1-11절)는 길르앗의 서자 출신인 입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추대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암몬 왕과 입다가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을 놓고 담판을 벌인 사실(12-28절)과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했다가(29-33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 사실(34-40)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매우 독특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심으로 사사가 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전투 지휘관으로 먼저 선정한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추인해 주는 형식으로 사사가 된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비록 그 동기는 열정적이고 순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율법을 어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입다는 가장 고귀한 인명을 미끼로 신들의 환심을 사서 소기의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이방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 절대 신앙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사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속사의 도구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들을 구속사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본 장은 인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사를 끊임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진행하심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헛된 자만심과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승리의 열매를 나눌 때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 하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입다를 비롯하여 입다를 따르는 길르앗 사람들을 근거 없는 말로써 비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야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4절). 이들의 어리석은 불평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욥 5:2)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에브라임이 길르앗 자손들을 비방한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승리를 쟁취한 길르앗 자손들의 영광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악한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선한 마음과 전심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영광만 탐하게 되면 에브라임 처럼 남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악한 마음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에브라임 지파의 간사한 행동과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마음과 입을 다스려 주시 불평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입산, 엘론, 압돈 치하에서 25년간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은 다 시금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1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4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2절)에게 임하여 그녀가 잉태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태어날 아기는 나실인이 되어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철저히 진행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 사사, 예언자들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빛 안에 거하면서도 그 밝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활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마치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라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소망을 잃고 해방을 위한 투쟁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은총을 누리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의 활약상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본 장의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삼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딘나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한 블레셋 처녀를 보고 결혼하고자 그 부모에게 허락을 구합니다(1,2절).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임을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허락하고 맙니다(3,5절). 그런데 삼손이 이처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의 미모에만 이끌렸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호감을 산 후, 적당한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4절).

비록 삼손의 계획 자체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 하나님의 뜻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 기타 사악한 풍습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통혼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특히,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통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은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되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동무들의 기만에 분노를 느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덤나로 갑니다. 덤나로 내려간 삼손은 장인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1,2절). 이에 이미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던 삼손은 이것을 기회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합니다(3절). 그리하여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둘씩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 곡식밭으로 쫓음으로써 블레셋의 온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모든 곡식 및 감람원을 불살라버렸습니다(4,5절).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화형에 처하였습니다(6절). 이에 격분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바위 틈으로 피신하였습니다(7,8절).

삼손의 사역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인간적인 약점이나 인간적인 공로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장단점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화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 가운데서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약점이나 공로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삼손의 최후에 관한 기록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일천 명이나 죽이는 큰 역사를 행했지만, 여전히 여자에 대하여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누설하였음은 물론 들릴라의 잔꾀에 의해 그 머리털이 잘려지는 치욕을 받았습니다(6-19절). 결국 삼손이 나실인의 율례를 범하므로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는 괴력을 상실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20-22절). 이에 삼손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고(28절), 다시금 힘을 회복하여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그곳에 모인 삼천 명의 블레셋인과 함께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29-31절).

이러한 삼손의 최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적으로 실수하긴 했으나 그가 진정으로 통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삼손 자신의 명예는 물론 훼손시켰던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비록 악하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며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순간 결길로 나아갔을지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더 좋은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써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며 받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다. 거기에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구별된 레위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신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아 율법을 철저히 범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장은 크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미가'라는 사람의 신상 제작과 신상 숭배에 관한 기록(1-6절)과 유다 지파 소속의 한 레위 소년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과정을 기록(7-13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혼란과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순종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을 영육간의 암흑 상태로 몰아넣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가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이기적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종교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엡 2:9). 죄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절실합니다. 죄악의 혼돈에 빠진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따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단 지파가 아모리인들로 인해 산지로 몰려나면서 그들의 영토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아모리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의 경계(수 19:40-46)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방비가 허술한 라이스 땅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해 가게 됩니다. 본 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내는 도중에 미가의 신상과 레위 소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1-10절). 라이스 땅 정복 전쟁을 행하러 가면서 레위 소년과 미가의 신상을 만난 그들은 그 신상을 약탈하여 자기 지파를 위한 신상으로 숭배하게 합니다(11-20절). 단 지파는 신상을 탈취 당한 미가의 항의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를 정복한 후 계속 그 신상을 섬겼는데 거기에는 모세의 증손자까지 있었습니다(21-30절).

후에 역대기 저자는 언약의 계보를 소개할 때 단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기자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 십사만 사천 명의 인원수를 말할 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는 모두 언급하면서 유독 단 지파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 장에서 나타난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종국은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모습이 현대판 우상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동족상잔 전쟁의 발단을 보여 주는 본 장에서는 개인의 윤리적 타락(1-3절), 행음한 딸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전혀 책망치 않는 가정의 윤리적 타락(4-9절), 기브아 비류들과 같은 악한들을 방치함으로써 마침내 집단 강간 치사라는 사건까지 야기하도록 만든 사회의 윤리적 타락(10-26절)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브아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쪼개어 각 지파에 두루 보낸 사실(27-30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역의 정도가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장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 행하도록 더러운 가운데 버려둔 자들의 실상은 바로 이와 같은 심각한 부도덕과 증오와 혼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롬 1:24-32).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인격과 존재의 기원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돌아볼 때 기브아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십자가 신앙의 변질은 우리 사회의 타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됨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레위인의 첩 관련 사건은 이스라엘 전 지파의 동쪽 상잔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브아인들의 비행에 대해 이스라엘 총회가 징계를 결의하는 과정(1-11절), 기브아인들에 대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불복하고 오히려 총회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베냐민 지파의 강경한 태도(12-16절), 이스라엘 총회가 두 번에 걸쳐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고 여호와께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17-28절), 총회가 마침내 베냐민 군대를 파하고 그 지파 전체를 말살하고자 시도하는 장면을 기록(29-48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공동체 의식이 와해되고 총회의 결의에 대해 한 지파가 강경하게 반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정적 원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내 산 언약과 그것을 근거로 한 율법을 받은 하나의 선민 공동체라는 의식을 함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 지파의 이익과 주도권 쟁취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들이 함께 선민이 된 구속사적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장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의 이익에만 급급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시야가 세상 것에 고정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는 희미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십자가 예수만 보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전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의 회복 대책을 논의하여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키며 민족 공동체도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끝맺게 됩니다. 비록 타락-징계-회개-구원-재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악순환을 계속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며 한 번 택하신 백성을 한 지파도 낙오 없이 계속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5절에서 위기로부터의 일시적 구원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은 힘으로는 결코 개인이나 공동체의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동기, 과정, 전쟁 이후의 수습 결과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성급한 전멸 계획을 곧 후회하고,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남치라는 모순 된 행위를 저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회복시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결코 완전하고 영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분열과 반목을 계속 일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혼동과 분열이 해결되어 평화와 행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인간끼리의 이 세상에서의 타협이나 편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통해 성취된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케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전도 여행의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장기 체류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형편이 못 되어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계속된 방문과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회개하였으나 일부가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역의 진실성(眞實性) 까지 불신하며 끝끝내 자신들의 과오를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正統性)과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본 서를 새로이 발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8절)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버리지 않고 감사 찬양을 올리며 자신보다 먼저 성도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죽음직전까지의 고난 중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9, 10절)과 자기를 돌보기 전에 성도의 구원을 바라는 그의 사도로서의 열정(6, 7절)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세상에 뜻을 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갈 수 있게 된 하늘에 뜻을 둔 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에 지쳐 삶을 포기하고 어둠의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케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비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픈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고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지도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비록 범죄하였을 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승리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로부터 받은 능력과 말씀으로 복음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순수성과 진실성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제기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을 해명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실 자체가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밝힙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사도권의 증거로 삼습니다. 말뿐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사도직의 증거와 그 영광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준을 따로 받거나 특정한 자들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 곧 사도권에 대한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과 믿음을 지닌 후 변화 받은 삶은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킨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완고함의 수건이 걷히고 열린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런 존재인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 (2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했다는 말은 전도의 방식과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기 좋은 것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십자가 복음을 가감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교요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모든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미움을 받았지만, 낙심치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시다(8-11절).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전하려는 뜨거운 열심과 헌신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로 인해 받고 있는 환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자주 바라봄으로써, 복음을 위한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과 장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은 핍박에 굴하지 않는 전도자들을 통해 힘차게 전파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②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고후 11:23). 그렇다면,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1절).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8절). 이렇듯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죽음을 사모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혹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을 달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과 작오를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곧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14절). 이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강권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밑에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의 헌신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고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 전적인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하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로 우리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활짝 열려져 있는 은혜와 구원의 문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구원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요일 3: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신자가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신자와 절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동화(同化)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7).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으로 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사람만이 세상과 구별된 참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충고와 훈계의 편지를 썼습니다(8절).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내심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나치게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읽고 죄를 깨달았으며 근심하던 중에 마침내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9절). 이것과 관련하여 바울은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10절).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죄를 부끄러워하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날마다 있어야 할 근심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근심이 먼저 있어야 참된 회개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 근심’은 단순히 이 세상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근심의 결과는 오직 사망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이런 근심은 백해무익할 뿐이요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주사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6:4).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인해 근심하게 하사 날마다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이미 시작한 연보 생활을 계속하도록 격려합니다(1-11절).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 자신도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3절)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헌금을 재촉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하고 남아돌 때 비로소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로 섬겨야 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질로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헌금의 근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9절). 여기에서 우리는 헌금의 근본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을 자원하여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부요함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을 취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소서. ② 농여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헌금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를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올바른 헌금의 자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7절). 즉,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깨닫고 우리의 소유를 선한 일에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한갓 물질을 아끼며 인색하게 굴겠습니까!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참된 헌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헌신 없이 단순한 의무로 행하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모든 소유, 모든 시간,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헐뜯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10절 참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만 가지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비난을 한 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고후 10:7). 사람들은 언제나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고, 돈이 많으며, 명예가 있고, 품행이 단정하면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법이 절대 없으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잠 8:17).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사 52:7). 그러므로 혹 이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이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써 얻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웁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18절).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본토 같이 여기며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고전9:16).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18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들에 관하여는 헛된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오히려 바울을 거짓 교사로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12-15절).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자기 자신이 참 사도임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했는지 그 숫자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으니, 곧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당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23-33절). 바울이 오직 이것만을 자랑한 까닭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참된 일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음의 참된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참 일꾼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10).

기도 제목 / 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1-4절).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를 의심했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과 목적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신임을 잃을 수도 있으며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부터도 그런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의심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15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마음입니까!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다 쓰겠다고, 또 자기 자신까지 다 허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심정과 태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오해와 비방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람들의 오해나 비방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

● 찬송/ 147장(주 달려 죽은 십자가) ● 본문/ 마 27:45-54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傳記)를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거나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사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공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한 명 더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우리의 삶의 복 됨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인물은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4절까지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본문의 앞뒤 문맥이나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② 27-31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③ 32-36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④ 54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충격적인 전도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점에서 '충격적인 전도자'입니까?

답)

② '가장 비열한 재판'과 '백부장이 목격했던 것들'과 '백부장이 옥암 속에서 들은 것들'의 세 단락을 읽고...

질문)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답)

③ '사형 집행자의 기이한 고백'의 단락을 읽고...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셨을까요?

답)

④ '사형 집행자의 기이한 고백' 단락을 읽고...

질문) 로마의 백부장과 우리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답)

⑤ 설교 끝에 있는 '기도문'을 읽고...

질문)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을까요?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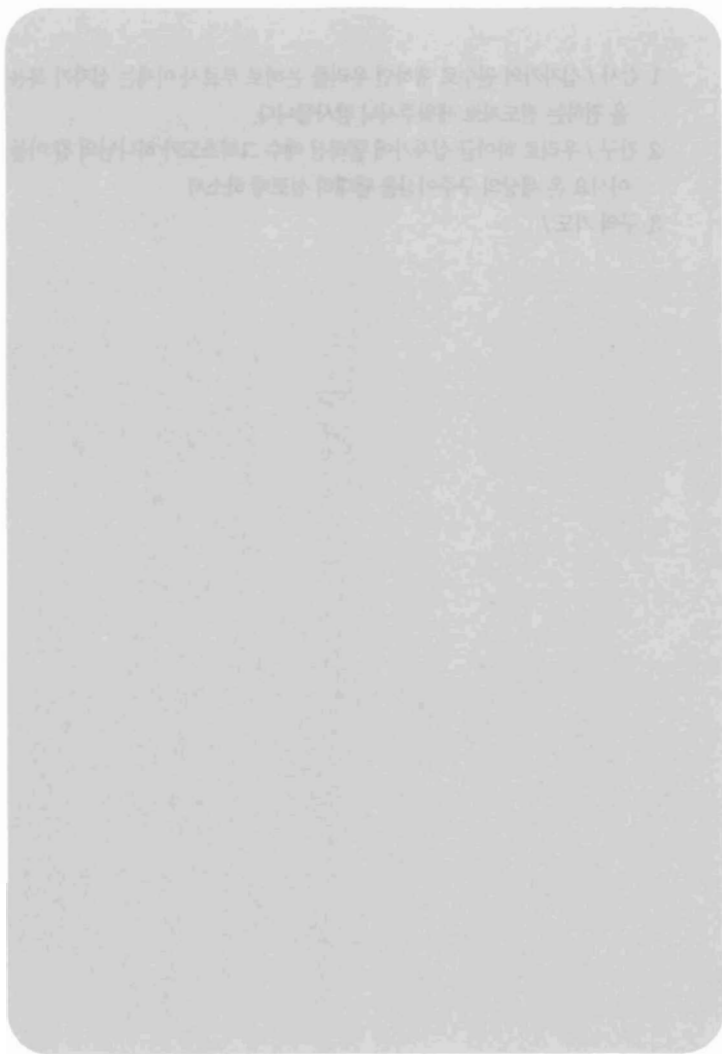
나가면서

어찌 다 감사하오리이까?
죄인 중의 죄수를 사용하사
당신의 성자(聖子)되심을 선포하시다니요.
어찌 이루 감사하오리이까?
미친한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다니요.
사랑의 주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소서.
만인을 위하여 사셨고 죽으신 당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당신 안에서
죄인들을 화평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역사!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입에 전할 말을 주소서.
백부장처럼
우리의 입도 당신의 진리를 고백하게 하소서.

1. 감사 /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사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담대히 선포케 하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제 2 과

어리석은 부자

● 찬송/ 532장(구름 같은 이 세상) ● 본문/ 눅 12:16-21

들어가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던 사람들도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면서부터는
그 신앙이 변질되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앞의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거나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지는 않을지라도
형식적인 신자로 전락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자주 성경을 펼쳐두고
이 세상의 부요함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위험한 것인지,
또 영원하고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관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머물면서

구약 성경의 배경과 맥락

1. 본문 관찰

- ① 눅 12:13-15: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을 정리해 보십시오.
- ② 16절: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누리고 있는 복된 환경은 무엇입니까?
- ③ 17-19절: 부자의 잘못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십시오.
- ④ 20절: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 ⑤ 21절: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어리석은 부자」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은 돈과 재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

②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1)'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부자가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 부자인지 자세히 비판해 보십시오.

답)

③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2)'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부자가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 부자인지 자세히 비판해 보십시오.

답)

④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3)'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부자가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 부자인지 자세히 비판해 보십시오.

답)

⑤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가 되라' 의 단락을 읽고...

질문) 혹시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답)

⑥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가 되라'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한 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21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눅 12:40)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눅 12:34).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 감사 /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제 3 과 ●●●●●●●●

심판에 관한 노아의 100년간 설교

♪ 찬송/ 167장(주 예수의 강림이) ♫ 본문/ 창 7:6-12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진 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최후 심판이나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
온통 정신을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 24:37,38).
이처럼 죄악의 수면제에 취해서
온 세상이 깊이 잠든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더욱 더 바짝 차리고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예비해야 할 것이며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공부하게 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창세기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한 번 정독하고, 범위를 줄여서 다음 몇 구절을 깊이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① 창 6:5-7 ;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② 창 6:13 ; 패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③ 창 6:14-22 ; 의인 노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④ 베후 3:7-10 ;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⑤ 베후 3:11-14 ;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올바른 준비는 무엇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심판에 관한 노아의 100년간 설교」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 ① '의의 설교자, 노아'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았기에'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노아의 삶의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답)

창 69	
창 622	
벧후 25	

- ② '세상의 조롱을 무시하고'와 '노아가 전한 메시지'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심판을 외치면서 노아가 겪어야 했을 어려움들을 말해 보십시오.

답)

③ '심판과 재림을 준비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최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정리해서 말해 보십시오(마 24:37,38).

답)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④ '좁은 문, 좁은 길'의 단락을 읽고...

질문) 구원에 이르는 문과 길이 왜 각각 '좁은 문' '좁은 길'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⑤ 「심판에 관한 노아의 100년간 설교」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의 삶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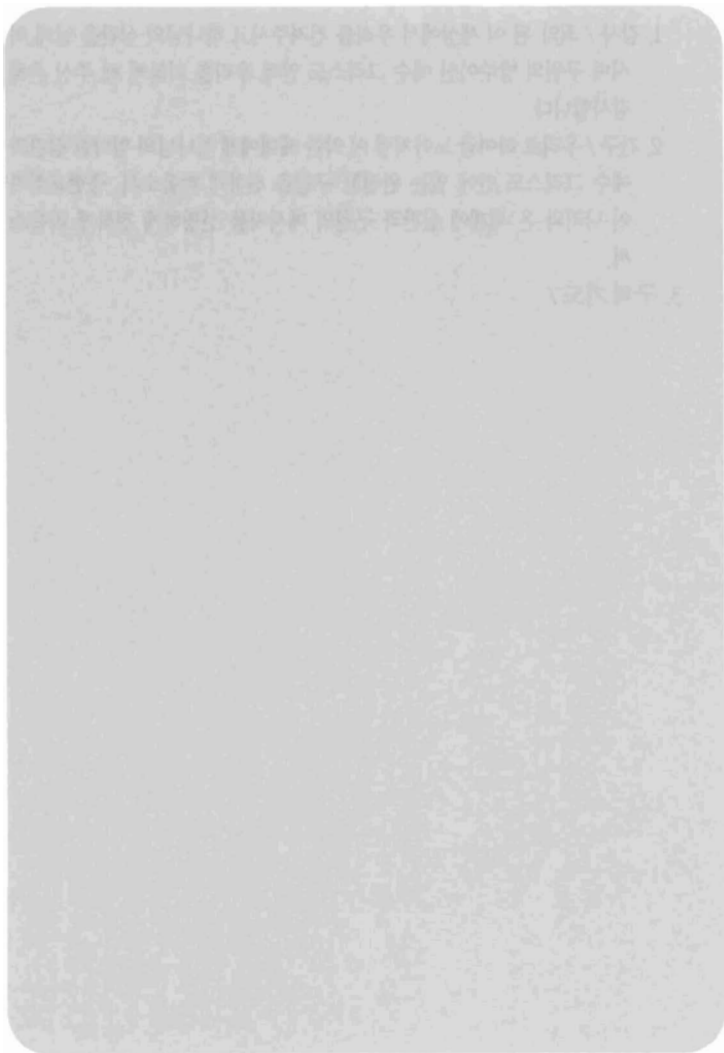
나가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까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시작될 날짜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이 영원토록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이 열려 있을 동안에 그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노아처럼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 감사 / 죄악 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로 하여금 노아처럼 이 악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총현교회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제 4과

초대 교회의 탄생

▶ 찬송/ 171장(비둘기 같이 온유한) ▶ 본문/ 행 2:1-4

들어가면서

일찍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지식이나 전통 위에 세워진
거짓된 신앙에 항거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구호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 아래
그들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갔고,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를 세우고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단행되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깊이 숙고하며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의 말씀을 먼저 정독한 후에 오늘 공과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행 1-2장 :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정리해 보십시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의미

② 행 2:1-4 :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외적 현상을 정리해 보십시오.

③ 행 2:5-47 :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궁극적인 결과를 정리해 보십시오.

④ 엡 4:30, 롬 8:16, 요 14:26 : 신자 안에서 성령의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초대교회의 탄생」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오순절의 참 의미'와 '오순절의 유래'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아래 표를 보면서 오순절의 유래와 참 의미를 각각 설명해 보십시오.

유월절(하루)↔무교절(7일)↔49일간의 공백↔오순절(칠칠절, 맥추절)
--

답)

② '성령의 강림'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얻게 된 변화나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후 3:17, 요 16:8)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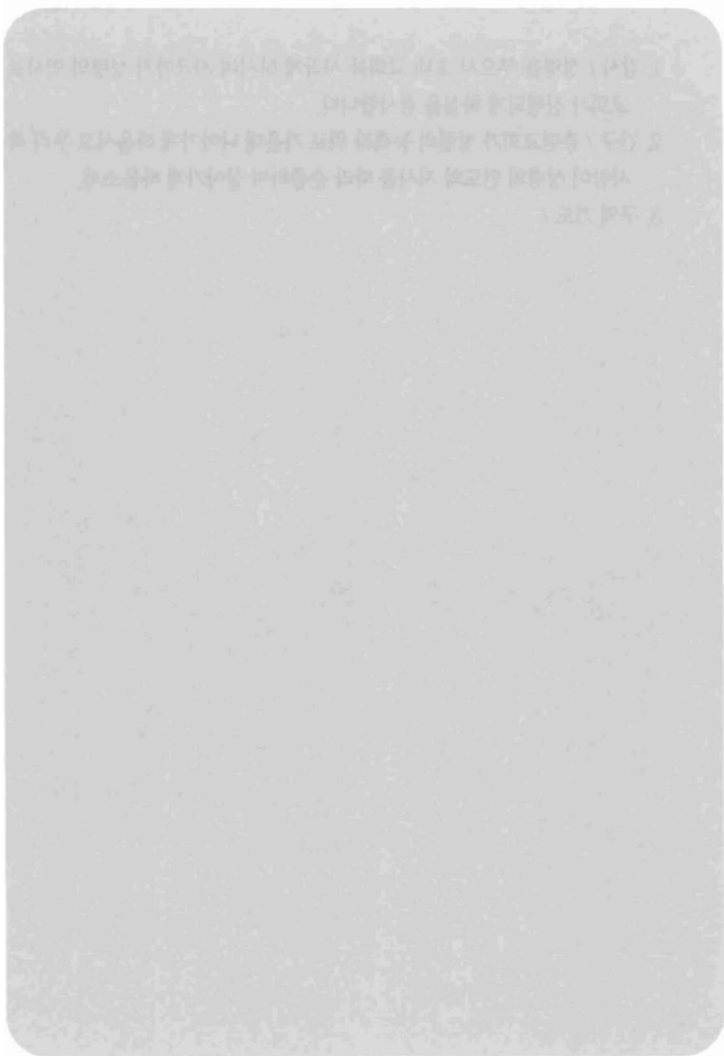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께서 하늘로 쫓아 임하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신약 시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신자들인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하늘의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으로서 구속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도록 합시다.

1. 감사 / 성령을 부으사 초대 교회를 시작케 하시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간구 / 충현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위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제 5과 ●●●●●●●●

주의 만찬

● 찬송/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눅 22:14-20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성찬식에 참여해도
은혜를 받고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하겠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준비가 있어야 하며,
성찬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찬식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효과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에 있을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① 눅 22장 : 성찬식이 제정된 앞뒤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② 눅 22:15 :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③ 눅 22: 16-18 : 주님이 암시해 주신 미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④ 눅 22:19 : 성찬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주의 만찬」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때가 이르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은 어느 때가 이르자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답)

② '왜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가'와 '심오한 관계'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왜 성찬식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고 불립니까?

답)

나가면서

그러므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1. 감사 /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2. 간구 /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에 출현의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심령과 참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5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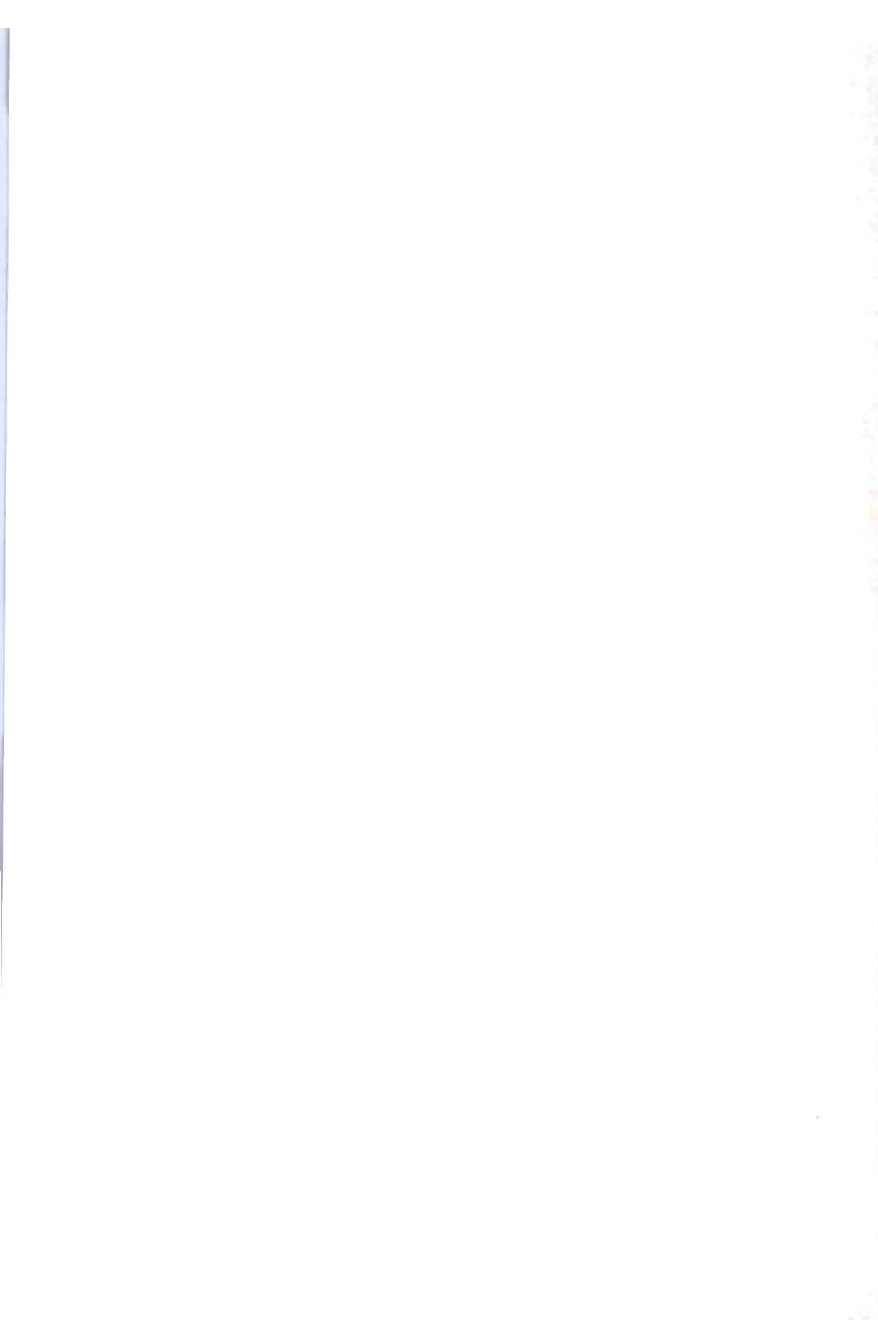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5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토동평야의 두코상남

토동평야의 두코상남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은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을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은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을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은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을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은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을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은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을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은 토동평야의 두코상남을



가정에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게사자 낭독		
기 도		다같이
주 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에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10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안치원(1-7일), 정충신(8-14일), 양재웅(15-22일),
이태복 (23-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8200) (비매출)